

# 資本蓄積과 物價水準

李 冕 錫  
(韓國 銀行 · 理事)

## 차 례

- I. 經濟活動과 物價現象
- II. 資本蓄積과 物價反應
- III. 物價安定的 貨幣的 效果
- IV. 結言에 代하여

### I. 經濟活動과 物價現象

우리의 經濟現實에서 보면 物價가 오른다든가 혹은 인프레가 進行된다 하는 따위의 현상은 불행하게도 일반에게는 큰 화제거리가 못 되는것 같다. 다시 말해서 經濟가 發展해 가는 過程에서는 다소의 物價騰貴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인프레는 오늘날 經濟舞臺에서 없어서는 안될 배경인양 일반은 인식하게끔 너무나 인프레의 해독은 漫性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부채질한 것이 케인즈이래의 New Economics의 雇傭增大爲主의 經濟理論이었던 것이다. 냉정히 생각할 때 물가는 과연 經濟의 成長과 더불어 다소나마도 등귀해야만 하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史實로서 Phelps-Brown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1914=100으로 하여 1815년의 물가지수는 200線에 있던 것이 그후 대체로 漸落을 보여 1895년에 40臺에 까지 暴落하였다가 다시 복구는 되었지만 1914年 즉 第一次大戰 直前까지만 해도 1世紀前 水準인 200을 상회하지 않았던 것이다.<sup>1)</sup>

그러나 오늘날 특히 二次大戰後의 先進國에서의 共通現象으로 經濟成長에 따라 물가는 계속 등귀하였으며 그 때문에 GNP의 trade off(蠶食)現象은 計量的인 복잡한 分析理論을 낳게 되었다.

일찍이 A. Marshall등 新古典學派에 있어서는 이러한 現象을 古典學派의인 價值論을 完全히 떠난 市場機構內에서의 商品需給價格現象으로 귀결짓고 언젠가 需給의 均衡狀態가 이

1) E.H. Phelps-Brown & S.A. Ozuga, "Economic Growth and Price Level" Economic journal, 1953, 3

A.H. Hansen 또한 그의 著書에서 1926을 基準으로 하여 美國의 都賣物價가 1800~1809의 100에서 1940~1946의 100으로 36年間 약 150年을 큰 變動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著書 "Monetary Theory and Fiscal Policy, 1949 제10장)

목되는 날에는 價格은 본來的 安定狀態로 돌아 갈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이들에 의하면 複雜多岐化되어 가는 資本制生産體制下에서는 商品의 固定價格에 의한 需給 즉 流通이 어렵기 때문에 이른바 市勢(Market forces)에 따른 繼起의인 새로운 價格形成이 이룩된다고 微視的으로 그 과정을 分析叙述해 나갔으며 限界效用均等(Equimarginal Utilities)의 法則을 근거로한 需給兩側의 行動原理에서 이른바 均衡價格이라는 窮極의인 決定價格水準을 提起한 바 있었지만 이러한 繼起分析은 한갓 觀念의인 思辯에 終始하였을 뿐 現實의 物價가 經濟成長과 더불어 限없이 搖動하고 있는데 관하여는 아무런 해답의 실마리를 示唆하지 못하였다. 특히 오늘날 후진국의 開發途上에서는 資本不足을 메꾸기 위한 財政 및 信用 인프래와 많은 海外貯蓄의 流入으로 말미암아 換인프래가 병행되고 있으며 物價는 겹치는 코스트의 當으로 그칠 새 없이 오르고 있다. 이에 후진국 特有의 第1次 및 2次産業간의 構造의인 乖離에서 오는 構造인프래 특히 農業人口의 都市集中에서 오는 새로운 社會形成支出이 齊來하는 所得인프래는 經濟發展의 度와 경합하면서 까지 假需要重心の 物價高를 놓고 있으며 2) 한 때는 G. Ackley로 하여금 물가등귀에 있어서의 需要 및 코스트·인프래 要因의 截然한 區分論(Dichotomy)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관마저 나게 하였다. 3)

한편 古典學派의 生産要素價格 즉 貨金歸屬價格說에 충실하면서도 需給兩側의 呼價行動의 大前題로 되어있는 所與의 貨幣量(購買力)의 觀點에서 物價問題를 들여다 본 A.H. Hansen 기타의 케인즈학파에 있어서도 有效需要의 原理에 의한 價格形成의 要因問題를 한갓 巨視理論化하여 所得과 貯蓄行爲에 간여시켰을 뿐 物價現象의 生態(Ecology)를 그것의 根源(Origin)에 파고 들어가 직접적으로 糾明하는 일은 하지 않았었다. 부연하면 이들에 있어서는 貨幣量 또는 貨幣貨金을 바탕으로 한 有效需要(D)는 그 彈力性에 있어  $e_D = \frac{D}{O} \cdot \frac{dO}{dD}$  로써 產出量(O)과 干聯性을 갖는 한편에서  $e_P = \frac{M}{P} \cdot \frac{dP}{dM}$  로써 貨金水準의 測度로서의 貨幣支出도 物價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만약에 產出量이 有效需要의 증가에 따라 極少量밖에 늘지 않는다면(다시 말하여 彈力性이 零에 가까우다면)限界生産費와 物價는 有效需要를 낳는 各分野의 貨金率이 상승하는대로 늘기 마련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4) 雇傭自體마저 오직 有效需要의 函數로만 規定되고 있는 이들 Keynes學派에 共通된 結核은 物價의 騰落現象이 우리를 肉眼에 호소하는 生産내지 供給側의 여러가지 조건——生産의 能率의인 管理, 技術性 및 原價로서의 要素價格의 變動등을 경시하고 物價가 實現되는 財貨의 流通場裡에서의 需要側의 입장만을 두드러지게 力說한데 있다. 하기야 케인즈가 長期的인 省察이라 하여 物價水準의 安定與否는 貨金單位 즉 貨金코스트에 의존하게 된다하여 現代的 用語의 코스트·푸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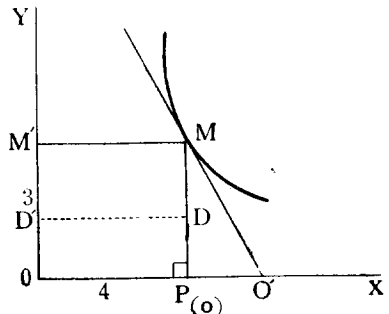
- 2) E.A.G. Robinson編 “Problem in Economic Dexevelopment” 1966版中 特히 Dr. Horowitz의 “Control of Inflation”를 參照.

- 3) G. Ackley "Macro-economic Theory" 1961 p. 451.

- 4) 이 두개의 彈力性의 和가 어느때든 1이 된다고 한 케  
이즈의 所說은 有名하다.

즉  $e_o + e_p = 1 = \left( \frac{D}{O} \cdot \frac{dO}{dD} \right) + \left( \frac{M}{P} \cdot \frac{dP}{dM} \right)$  인데 이것을

$e_c = \frac{1}{4}$   $e_p = \frac{3}{4}$ 으로 하여 圖示하면 다음 圖表에서 無  
 差別曲線과의 切線  $MO'$ 가  $X$ 軸上和 交叉하는  $O'$ 와  $P$   
 의 거리리는  $OP$ 의 거리(4)와 같으며(彈力性=1)  $e_c =$   
 $\frac{1}{4}$ 이기 때문에  $PDOD' = 1$ , 또  $e_p = \frac{3}{4}$ 이기 때문에  $DM$   
 = 3으로 만약하여 結局  $M$ 에서 兩軸에 垂直으로 내린  
 $MM'$ 線과  $MP$ 線 또한 同거리로 寫다는 指定이다.



說을 표방하고 있는 點은 그것이 文字 그대로 長期的인 考察인 限妥當性이 없지 않다. 다만 現實의 短期考察에 있어 勞賃코스트云云의 提起만으로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生産活動의 裏面을 論盡했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資本設備과 技術水準등을 所與의 것으로 보는 Keynesian의 靜態考察이 연유하게된 바로 根源이 이에 있거니와 이러한 有效需要의 原理에 의하면 經濟가 발전한다거나 資本이 蓄積되는 어느과정에서도 항상 物價는 賃金코스트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오르게 마련이며 完全雇傭에는 물론 대부분의 後進國의 경우의 不完全雇傭때에도 雇傭과 生産이 有效需要=貨幣量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窮極의으로 賃金의 上向傾向이 物價를 誘引하고 있다는 전망에서 中장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귀납적인 결론도 技術(生産量)水準이 一定하고 消費性向(需要)에 대한 彈性性도 長期的으로 보아 크게 變動이 없으며 需要에 대한 物價의 彈性性도 별로 攪亂되지 않을 경우에 斷言할 수 있는 것이며<sup>5)</sup> 이들 變數간에 多少의 逆行이 있을진대는 결코 케인즈의 所說도 正鵠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일례로 貨幣賃금이 느는대신에 消費性向(케인즈학파에서는 短期的으로 固定하다고 봄)이 急降한다든가 하면 物價는 生産과 雇傭이 별로 급증하지 않는에도 不拘하고 下落하게 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需要가 급작히 늘므로써 Demand pull inflation을 유발할 素地를 남기게 될 것이다. 또한 消費性向이 케인즈가 指定한대로 固定的인 狀態下에서 物價가 貨幣賃금이 느는대로—이를테면 Ricardo流의 古典派에서 말하는 賃金코스트를 유일한 判官으로 오를것으로 본다해도 여기에 技術의 革新에 의한 生産性的 급작스러운 提高가 前題로 된다면 物價는 短期간의 波動을 거쳐 도로 安定水準으로 收束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前題로 하는 條件의 여하에 따라 물가 현상은 歸結되는바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럼 果然 物價問題의 把握은 아킬레스의 踵처럼 永永종잡을 수 없는 迷宮의 次元에 속하고 마는 것인가? 냉정히 생각하여 物價形成의 要因이 되는 여러가지 生産要素를 一瞥하기로 하자. 물가는 단적으로 말하여 財貨의 生産費인 資材값외에 技術代價와 勞賃외에 需給의 不均衡度가 겹쳐서 그 水準이 決定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는 케인즈도 說破하였지만 여기서 특히 이러한 生産費 形成 즉 市場에서의 實現價格의 主宗要因으로서 勞賃이 등장하게됨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財貨價格의 構成을 그 源泉에 까지 추구해가며는 財貨(A)의 原資材(A') 그리고 그 原資材(A')의 原料(A'') 等等하여…… 窮極에 가는 原資材  $A_n$ 을 얻기위한 노동의 代價가 A財貨의 價格속에 도사리고 있음은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A_n$ 을  $A_{n-1}$ 로 轉型하고 原資財를 生産財, 그리고 消費財로서의 完製品에 까지 加工하는 과정에서는 第一로 時間의 要素가 들고 移動의 費用要素가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을 質的인 능률면에서 等差를 두게 하는것이 技術이며, 또한 經營組織이나 生産의 規模인 것이다. 케인즈에 있어서는 上述한바 勞賃코스트를 생각하는데 있어 이러한 技術이나 生産規模등은 所與의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商品을 市場에다 내놓은 業者로서는 單純한 勞賃코스트외에 이들 商品에 歸屬된 技術 또는 生産規模의 費用도 생각 안할수 없다. 具體的으로 이들 費用은 그러한 코스트要素를 덜 들인 他企業의 同種製品보다 同一生産期間內에 보다 많은 製品을 넘으므로써 カバー될수 있을 것이고 技術의으로 優秀한 企業이 이른바 A. Marshall의 準地代를 얻음으로써 이들 費用部分은 補償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5)  $e = \frac{M}{P} \cdot \frac{dP}{dM}$  ( $P$ =物價,  $M$ =貨幣量)이 이들 彈性性關係를 말하는 것인데 Keynes는 이에  $e = e_{p,ed}$  즉 貨幣量에 대한 物價의 彈性性은 貨幣量에 대한 需要의 彈性性( $ed = \frac{M}{D} \cdot \frac{dD}{dM}$ )과 需要에 대한 物價의 彈性性( $ep = \frac{D}{P} \cdot \frac{dP}{dD}$ )의 相乘積에서 얻어진다고 하였다. (General theory pp. 310~312)

서 重要한 것은 補償 그 自體가 아니고 物價에 反映되는 費用要素로서의 技術이나 規模의 費用인 것이다. 筆者는 以下 이들 費用要素를 「生産性出費」라고 일컫고 物價는 生産性이 높을수록 우선 單純反比例의 低水準이 되어야 한다고 前提하고 싶다. 여기서 單純反比例關係라 함은 J. Feourastié가 말한바 商品原價를 구성하는 貨幣的 貨金이나 原價의 貨幣的 尺度等은 姑捨하고 物과 物의 對立概念을 뜻하는 것이다. 6)

곧으로 物價水準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需給의 不均衡度 특히 主觀的인 評價(mark-up 또는 Mark down) 現象이다. 이것은 具現되어야 할 正當한 市勢보다 높은 또는 낮은 價格을 呼價함으로써 現實의 價格水準에 影響을 끼치게 되는 行爲인데 商品의 供給者로서는 直接生産費外에 이윤이나 社會간접자본비용을 附加해서 呼價하는 것이 一般의 이고 7) 商品의 需要者로서는 市勢判斷에 하에 따라 正當市勢에도 불구하고 商品의 確保를 위하여 讓許하는 呼價部分인 것이다. A. Marshall의 消費者剩餘를 價格으로 換算附價하는 데서 얻어지는 一般物價水準의 어떤 部分이라 하겠다. 기타 또 物價水準이 影響을 주는 需給의 不均衡度에는 買占, 買惜行爲나 官許價格, 管理價格등 여러가지의 一方的인 價格形成作用이 간접 되는 데 이러한 것이 物價現象속에 잠재되어 있음으로써 그것이 없을 경우 원활히 具現되었을 市場價格形成이나 價格體系의 파악에 보다 많은 혼신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을 要約하면 物價現象을 이룩하는 여러가지 要素에는 大別하여 (1) 有效需要 즉 Keynes의인 概念의 貨幣所得내지 貨幣保有量에서 影響을 받는 貨幣效果面이 있고 (2) 두체로는 新古典學派에서 말하는 價格이 具現되는 市場에서의 微視的인 需給關係-市場效果面이 있고 세체로는 購買力과 對峙되는 財貨의 總供給能力으로서의 生産性效果面이 있겠으며 (4) 아울러 需給兩側의 財貨에 대한 作爲로서의 Mark-up 獨寡占 내지는 價格形成에의 A Priori 한 간섭행위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II. 資本蓄積과 物價反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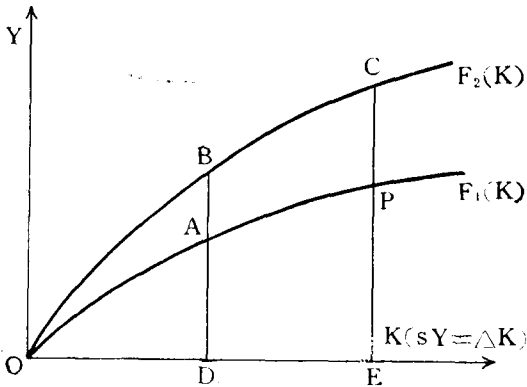
그러면 資本蓄積 過程에서 物價의 本然의 자태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筆者는 일찌기 資本蓄積 過程을 說明함에 있어 그것이 단순히 社會의 總貯蓄性向과 生産係數(資本係數의 逆數)의 相乘積에서 결정된다고 일단은 假定하였고  $(r_t = a \cdot \frac{Y_{t-1}}{K_{t-1}})$  註: 拙稿 “資本蓄積論에의 一接近”-經濟學 研究 第11輯) 그것이 中立的인 技術進歩下에서는 N. Kaldor의  $G_k = \frac{S}{V}$  ( $G'_k$ =資本蓄積率  $S$ =貯蓄性向  $V$ =資本產出量 比率)과 同軌의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여기서 留意할 것은 N. Kaldor의  $G'_k$ 는 均衡的인 經濟成長  $G_n$ -Harrod의 自然成長率과 同概念을 보장하는 資本蓄積率인바 만약에 資本費用의 概念을 拂拭하고 勞動費用과 그것을 算基로 하는 勞動生産性을 中心으로 資本蓄積過程을 바꾸어 表現해 놓으면 Harrod의  $G_n = l + t$  (但  $t$ =勞動生産性的 增率  $l$ =人口增加率)에서  $G_k = l + t$ 로 놓을 수 있으며  $t$ 는 또한  $\lambda/1 - \alpha$ 로 代位할 수 있기 때문에 (但  $\lambda$ =技術一般的 進歩率  $1 - \alpha$ =勞動에의 所得歸屬部分) 우리의 資本蓄積率  $\gamma$ 도  $\lambda/1 - \alpha + l = \gamma$ 의 側面에서 考察할 수 있는 것이다. 즉 資本蓄積의 過程은 勞動人口가 늘면 늘수록 유리하게 進展될 것이고 또 그 生産性이 높을수록 資本

6) J. Feourastié: le grand espoir du XX<sup>e</sup> Cicle, 1963. p. 107.

7) G. Ackley, Ibid pp. 453-456 한편 R.M. Solow에 의하면 이러한 作用은 市場支配力이 있는 사람이나 組織에 의한 價格形成上的 壓力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早熟性인프레를 양성하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G.P. Schultz & R. Z. Aliber編 “Guidelines, Informal Controls and the Market Place”, 1966중 R.M. Solow의 報告)

의 蓄積率이 提高된것이 分明한데 여기에 한가지 勞動에 歸屬되는 所得部分( $1-\alpha$ )이 相對的으로 적어야만 하겠다는데는 理論上의 保障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資本蓄積 過程은 具體的으로 資本裝備를 包含한 投下資本의 蓄積이 絕對量에서 느는 過程이고 보면 勞賃만으로 歸屬部分의 모두인 勞動所得이 增大可能性은 相對的으로 적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現實의 經濟社會의 發展現象에서 보면 技術進步와 資本蓄積의 過程에서 資本 및 勞動에의 歸屬部分은 絕對量에서 다같이 늘고(Hicks의인 技術의 中立性임) 오직 資本蓄積率만은 經濟가 先進할수록 相對的으로 低率인 것이 通例인 것이다. 이것은 產業革命以後의 지난 약 2세기동안의 人類의 經濟發展이 大體로 中立의인 技術進步—Hicks나 Harrod의 定義에 의한 勞使分配率一定下의 資本利潤率의 固定傾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資本의 限界生産性과 平均生産性이 큰 隔差없이 실현되었다는 證左인 것이다. J.E. Meade의 圖示를 빌리면 F圖에서  $F_1(K)$  및  $F_2(K)$  (K)의 兩生産函數가 자기 所得高線BD 및 CE와 交接하는 點A 및 點C에서의 勾配(限界生産性)의 比가 兩生産函數로서 代辯되는 技術進步結果의 平均生産性  $\left(\frac{AD}{OD} \div \frac{BD}{OD}\right)$ 의 比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結局 이는 同一 資本量을 갖고 限界生産性이 技術進步에도 불구하고 產出量의 增加와 같은率로 늘어 났을때를 일컫는 것이다 하겠다.(8)

그리하여 上述한과 中立의인 技術進步下의 資本利潤은 固定傾向이면서 勞使의 分配率은 大體로 큰 變動이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但 이렇게 分配된 勞使歸屬分中 資本制生産의 發展은 漸次로 生産의 機械化 portion을 深化하

고 그에 따라 資本·產出量 比率 즉 資本係數가 느는 反面에서 이의 供給源인 貯蓄(Harrod가 指定한바  $\alpha$ 가 固定)이 主로 勞動力人口側의 所得水準이 未洽하였기 때문에 Harrod의  $g_w = \frac{1}{C_r}$  & ( $g_w$ =經濟의 適正成長率  $C_r$ =必要資本係數  $\alpha$ =貯蓄率)에서  $g_w$ 가 保障 못되는 Antinomy속에서 資本의 增加率 즉  $\frac{1}{C} \& = \frac{Y}{K} \cdot \frac{\Delta K}{Y} = \frac{\Delta K}{K}$ 를 기대할 수 없는 狀態로 몰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資本蓄積率의 未達部分을 채워 넣는것이 近代의 概念의 銀行信用인 것이다. 즉 預金銀行에 의한 信用制度가 本源預金의 몇배를 자아내는 과정에서 生産에 필요한 金融資金의 產業資本化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生産活動에 앞선 投資優先의 型態로 生産諸要素의 代價가 先拂되어 나갔던 것이다. 이 先拂이 競爭을 낳고 獨占을 낳는 과정에서 또 財貨 특히 勞動力의 代價인 勞賃支拂은 財貨生産을 뒤따르지 않는 인프레·갯을 낳게 마련이었다. 한편 이러한 支拂勞賃의 適正水準을 유지못하게하는 社會的 要因으로는 勞動力 自體의 絕對量이 不足하다는것 외에 勞動團體等에 의한 賃金引上要求가 매우 合法的이면서도 組織的으로 이루어지고 또 뒤늦게나마 生産性的 增加가 이를 先行된 인프레·갯을 충분히 메우지 못했다는 기술의 遲行性을 들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의 經濟發展과 資本蓄積이 이루어지는 經過을 보면 古典學派가 喝破하듯이 賃金水準은 下向硬直性안에 머무르는것이 아니고 技術進步에 의한 生産性的 上昇過程

8) J.E. Meade, "Economics of Neo-classical School," 1961.

에서도 또한 우리가 말하는 「生産性出費」가 늘게 마련이기 때문에 物價는 어차피 오르게 마련인것이 들어난다. 그러면 왜 「生産性出費」나 勞賃上昇을 相殺할만큼 生産性이 뒤늦게나마 充分히 上昇하지 못하고 있느냐 反問의 要諦일 것인데 이것은 일찍이 D. Ricardo가 指摘한바 資本收益遞減의 法則에서 뜻하는 迂回生産段階에서의 製品競爭領域의 擴大와 商品需要者の 手중에 들기까지의 流通機構의 多岐化때문에 生産性이 單位期間內에 費用要素를 償還하지 못하게끔 資本制生産이 복잡해 졌으며 이외에 需要嗜好 또한 生産에 앞질러 變化하기 때문에 滯貨 기타 貶價가 생기게 된다는 點에서 그 解答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 아니라 勞賃이 個個業種이나 業體의 生産 事情과는 遊離되어 全面推上(Spill over) 또는 drift(業間格差의 縮少)되는데서 오는 코스트·푸슈도 있을뿐 아니라 上述한바 需給兩者側의 Mark up도 아울러 需給의 不均衡度를 높임으로써 物價一般을 올리는데 加勢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資本蓄積 過程은 부단히 物價가 搖動(Oscillation)하는 과정인 것이며 그것은 物에 대한 사람의 활동이 資本이라는 可見的 또는 非可見的인 手段을 통하여 그 經濟의 效果를 달리하는 技術進步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J. Feourastié는 이 點의 確하게도 技術進步가 있는 時期에는 價格의 安定性은 생각할 수 없다고 斷言하게 된 것이다. 즉 그에 의하면 技術進步는 人間勞動의 生産性으로써 測定되며 諸財貨의 原價는 勞動生産性的 逆數로서 變動한다고 보고 實例로 産業分類上 第1次 및 第2次 産業에서의 價格이 第3次産業의 그것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低下되어가는 것은 第3次産業部門의 勞動生産性이 그다지 提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9) 여기서 특히 第3次産業部門의 勞動生産性이 提高되지 못했다는 事實이 經濟發展의 歷史가 얇은 後進國 一般에서 흔히 指摘되는 일이고 보면 經濟構造가 前近代의인 것과의 二重三重的 桎梏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國民經濟에서의 物價上昇의 主因이 官許 또는 管理價格의 對象이 되는 많은 서비스部門에서 派生되고 있다는 點에 세심 留意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資本蓄積 過程에서는 G. Robinson이 말한바와 같이 “資本 Stock과 技術이 늘고 그것에 의한 오랜 時間에 亘한 前進運動, 그 結果의 各商品의 產出量의 增大가 이룩되면서도 一群의 企業家에 의하여 導出되는 價格政策이 他企業家들의 主要費用에 影響을 주어… 복잡한 干聯下에 經濟의 구성구성을 支配하게 되는 것이다” 10)

둘이켜 資本蓄積過程에서는 大別하여 資本과 勞動에 대한 要素費用이 支出되나 이것을 勞動生産性을 中心으로 본다면 이의 提高를 의한 直接間接의 出費가 市場에서의 具體的인 財貨와 對峙하여 이룩하는 需要側面에서의 價格壓力은 그 出費가 많으면 많을수록 物價水準一般에 고스란히 影響을 끼친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즉 根源의으로 볼 때 物價水準一般 P는 勞賃單位로서 表現되는 購買力一般 W와 正比例關係인 것이다. 그러나 供給側도 고려 안할 수 없다. 즉 物價水準一般은 두째로는 財貨의 供給側에서의 價格引下를 가져올 生産性的 提高와는 根源에 있어서 反比例關係를 갖는다고 하겠다. A를 勞動生産性으로서 代辯하는 生産性一般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P \propto \frac{1}{A}$ 가 成立될 것이다. 이들관계를 종합하면  $P \propto \frac{W}{A}$ 가 價格의 보편적인 實現型態라 하겠다. 그리하여 資本蓄積의 過程에서보면 初期段階에서는 投下資本의 懷妊期間이 길기때문에 生産性 A보다 W의 增加率이 늘어 物價는 大體로 上昇傾向을 띠게 되나 一旦 經濟가 發展의 中盤期에 들게되면 W보다 A의 增加率이 相對的으로 높게되어 P는 그 增率이 遞減되거나 景氣의 後退期의 必須現象으로서 下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은 史實이 證明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局限된 條件下의 純粹論理를 떠나 財貨

9) J. Feourastié, Ibid, pp. 108~109.

10) J.V. Robinson, "Theory of Capital Accumulation" p. 163.

하나하나 또는 建築財, 施設財 혹은 衣類나 貴金屬類의 商品類別로 볼때는 上述한 一般物價의 影響外에 그 自體 이들 類別商品을 支配하는 價格運動이 있고 이것이 連鎖反應하여 全般物價에다 다시 衝擊(impulse)를 준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衝擊의 要因을 購買力面 즉 需要側面에서 보면 여기에 또 全般的인 物價形成의 경우와 每一般으로 (1) 有効需要를 넘는 單純한 Speculation에 의한 假需要도 있을 것이고 (2) 有効需要이지만 類別商品에 대하여 갖는 一定所得層의 集中購買意欲 내지는 正當히 具現되어야 할 價格에 對한 Mark up(高評價)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뿐 아니라 이러한 需要者側의 Mark up을 豫想하여 供給者側 自體에서 實價이상으로 呼價하는 高評價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一부분 이 Mark up部分을  $b$ 로 놓기로 하자. 우리는 S. Weintraub 교수에 따라  $P = b \cdot \frac{W}{A}$ 를 指定할 수 있을 것이다. 한테 여기서  $b$ 의 測定이란 實際로는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하면 荒唐無稽하다할 수 있다. 왜냐하면 一般物價나 特定商品의 價格에 대한 需給兩者側에서의 各其의 Mark up은 여러가지 經驗과 觀望에 의한 것인데 이것을 數式으로 잘라서 表現하기란 正確을 期하기에 많은 假定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한테 S. Weintraub 教授는 여기서  $b$ 를 賃金 parity  $b$ 의 逆數 즉 社會總就業人口의 平均所得/被雇傭人口의 平均所得으로 捕捉하여 結局  $b$ 는 그 商品에 대한 競爭의 程度—다시 말하여 賃金所得에서의 需要의 強勢를 넘는 價格形成에의 寄與部分이라고 보고 있다. 敷衍하면 社會總就業人口의 平均所得水準이 賃金所得水準을 넘는 部分만큼 商品의 需給兩者側에서 同商品에 대한 Mark up이 可能하고 또 실제로 具體的인 市勢가 이룩된다는 뜻으로 그 運算은 다음과 같다.

$b = \text{賃金 parity의 逆數} = \frac{\text{賃金所得者平均所得}}{\text{就業總人口平均所得}} \text{의 逆數}$

$$\therefore \text{賃金 parity} = \frac{\text{賃金所得分配率}}{\text{賃金稼得者比率}} = \frac{\text{賃金所得總額}}{\text{就業人口所得總額}} \div \frac{\text{賃金稼得者數}}{\text{就業總人口數}}$$

이리하여 S. Weintraub 教授에 의하면 勞動生産性  $A$ 를  $\frac{Q}{N}$  ( $Q$ =總產出量,  $N$ =被傭者總數)로 놓고 이에 資本蓄積部分  $K$ 를 兩者에다 乘하면

$$P = b \cdot \frac{w}{A} = b \cdot w \cdot \frac{1}{A} = bw \cdot \frac{N}{Q} \cdot \frac{K}{K} = bw \cdot \frac{K}{Q} \div \frac{K}{N}$$

에서 資本蓄積의 過程에서 物價水準은 一般的으로

- (1) 賃金 parity와 反比例로 社會總就業者의 平均所得 즉 國民 1人當 平均所得이 늘면 오르게 마련이고 (따라서 被雇傭者 平均所得이 늘어도 同斷)
- (2) 資本產出量 比率 즉 資本係數가 느는 限에서도 오르게 마련이다.
- (3) 被傭者 一人當 資本裝備率이 늘면 生産性的의 提高, 生産活動의 機械化로 物價로本來가 低下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이 세가지 命題 各其는 餘他條件이 움직이지 않는 限事實과 符合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 命題 各其의 作用은 경우에 따라서는 自體內에서 撞着될 수도 있다. 一例로 (3)의 경우에 資本裝備率이 느는 速度와 生産性的의 提高間에 겹이 생겨 生産을 위한 資本出費가 늘어 現實으로 投資인프레가 進行되는데도 不拘하고 物資의 出廻가 이를 뒤따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3)의 命題는 하나의 잠재력으로 物價에 形勢를 끼칠 뿐 具體的으로 物價對策에 援用될 수 없는 수단이 되고만다. 돌이켜 (1)의 命題에서도 그러한 撞着이 있을 수 있다. 즉 이 命題는 케인즈의 有効需要의 原理대로 一般的으로 所得이 늘면 支出이 늘고

11) S. Weintraub: "A Keynesian Theory of Employment,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1968 pp. 30~31.

物價는 오른다는 平凡한 眞理를 말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賃金 parity b의 逆數인 b를 내리는 作用으로서 社會平均所得보다 被傭者의 熟練度가 높고 그 結果 그들의 平均所得이 높다는 反證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그러한 parity事情이 계속하는 限 國民一人當 所得이 는는 一方에서 生産構造는 物價水準을 抑制하는 方向으로 機械化가 되어 간다고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G. Robinson이 “높은 賃金水準은 높은 機械化率과 結付된다”고 說破한 단제가 이러한 경우일 것인데<sup>12)</sup> 그렇다고 높은 賃金率때문에 企業者側에 歸屬될 所得部分이 相對的으로 적어지고 그 때문에 經濟가 破壞되었다는 史實이 없는 技術의 中立的인 進步가 前提로 되는 만큼 이들 命題自體內的 撞着도 세계의 大命題가 具現되는 한 언젠가는 同和되고 만다고 보아야 하겠다. 要컨데 여기서 우리가 銘記할 點이란 資本蓄積이 이룩되는 과정에서 物價水準에 變動을 가져오는 것이 被傭者를 包含한 全就業人口의 所得水準과 資本係數(Harrod의 經濟成長率에 관한 基本公式에서의 需要要因)등의 比例要因이거니와 이에 또 被傭者의 資本裝備과 그에 따르는 勞動生産性的 技術의 要件이 反比例 要因으로 作用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이를 해로드의 Antinomy에서 따져보면 物價水準에 影響을 주는 需要要因은 所得의 絶對 및 增加水準을 根基로 하는 經濟의 適正成長運動의 方向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고 供給要因은 勞動人口의 增加率을 根基로 하는 經濟의 自然成長運動의 方向에서 가름해 낼 수 있는 터이다. 그러기 때문에 物價의 向背를 同一 經濟體質內에서의 適正과 自然成長運動의 相馳方向에서 보면 혹은 그 向背가 前者에 기울때에는 過剩需要로 해서 Demand pull에 의한 上昇趨勢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에는 經濟成長率에서의 供給要因이라 할 勞動人口의 增加나 그 技術的인 進步率이 이러한 過剩需要를 배우고도 餘勢가 있어 物價가 오늘날 같이 계속 오르는 것이 通例인데 여기서 重要的 것은 이러한 過剩需要도 그 밑바닥의 生産性에 相應하는 適正賃金水準이 想定되어 있고 그 위에 完全雇傭狀態인 先進國에서 보듯이 勞動力의 不足으로 인한 賃金過當競爭으로 말미암은 賃金코스트上昇-物價水準引上的 現象이 內在하고 있는 것이다. 人口가 過剩狀態에 있고 資本不足으로 被傭者當 資本裝備率이 相對的으로 낮은 後進國에서도 이러한 賃金高로 인한 Cost-push現象이 없지 않다. 낮은 生産性은 낮은대로의 水準에 있으면서 過當競爭아닌 通常的인 賃金水準을 올리고 그 낮은 賃金水準의 有効需要化로 市場에서 보다 高率인 物價上昇趨勢가 멈추지 못하는 現象이 바로 이것이라 하겠다. 하물며 당초부터 製品原價와 동떨어진 水準에서 獨寡占狀態의 管理價格(Administered Prices)이 決定되고 그것이 政府施策의 庇護로 上昇하는 方向만을 계속하는 後進社會에서의 通弊는 物價趨勢의 安着을 기대할 나위없이 開發인프래의 進行에 따라 限없이 物價上昇이 期待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또 助長되는 것이 展示效果와 짝을 같이하는 超過 내지 假需要現象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過剩 내지 假需要가 모든 財貨에 걸쳐 正當한 目標價格을 歪曲되게 推上하게 되는데서 어느 業種에 있어서도 安定 且硬直性이 긴드린 價格實現이 생겨날 餘地없이 生産活動에서 부터 販賣活動에 까지 언제나 不安과 疑惑이 긴들게 되는 것이다. 先進國에서 볼 수 있는 巨大業體들의 安定爲主의 管理價格이 物價水準 一般을 지령하는데 클 役割을 한다는 例도 여기서는 찾아볼수도 없고<sup>13)</sup> 後進社會는 固有한 非組織的인 流通機構속에서 價格의 體系는 支離滅裂狀態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12) J.V. Robinson, "Theory of Capital Accumulation," p.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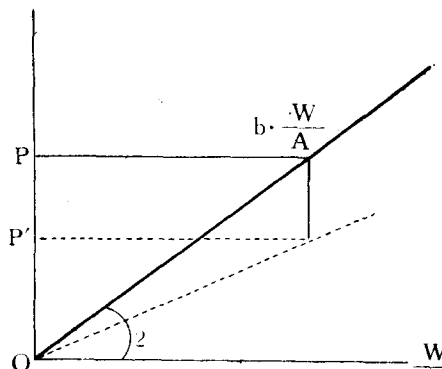
13) G. Means "Pricing Power and the Public Interest," 1962. 그는 이 著書에서 國民經濟에서의 支配的인 業體들의 價格變動頻도가 대체로 낮아 점으로써 全體的인 市場價格의 安定硬直化에 奏効하고 있다고 喝破하고 있다. 자세한는 大韓商議의 “한국경제 연구총서” VIII(管理價格과 物價 1970) 參照



그러기 때문에 後進國이 인플레이션對策의 최후수단으로 쓰는 主要財貨價格의 行政的인 統制도 그것이 反對波及하여 누르고 있는 價格自體를 풀어놓아 주어야 하는 모순에 도달할때도 많게 되는 것이다. 購買力側을 억제한다 하여 때로 銀行貸出을 抑制한 結果가 私金利率을 올리고 高利債의 流通을 저해하여 다시 銀行信用의 完화에 까지 逆轉되는 경우도 同軌의 일이지니와 大抵 貨幣經濟下에서 銀行信用의 上部의인 現象만을 제어함으로써 貨幣經濟의 밑바닥에 있는 信用의 복잡한 聯關을 閉塞코저 하는 일이란 한갓 觀念의 誤謬에서오는 弊端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本質 아닌 要素를 中心으로한 施策들이 공연히 충격을 주는 일은 枚擧하기에 너무나 많다. 要는 物價問題와 같이 經濟의 上部現象이면서 매우 복잡한 갈래의 集中現象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무엇이 根幹의인 것인가를 잘 識別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앞에 언급한 바 세가지 命題로 돌아가 各其 生産性, 賃金, 技術進步, 所得水準의 各要素를 制禦하는것이 要諦이지니와 거기서도 長期的이고 基本的인 施策態度라면 第一로 生産性을 높이는 일 즉 오르는 賃金코스트를 相計하고고도 餘力이 있을만큼 技術發展에 의한 勞動單位當 產出高를 提高하는데 注力할 것이다. 케인즈派의 短期考察——資本設備나 技術水準의 固定을 前提——의 입장에서도 歸結은 같다고 할 것이다. 즉 上述한바 그가 有効需要의 生産量과 物價에 끼치는 影響이  $e_o + ep = 1$  즉 需要에 대한 生産의 彈力性和 또한 勞賃支出에 대한 價格의 彈力性的의 總和에서 얻어진다고 할때 有効需要를 낳는 勞賃支出이 短期的으로 固定이라고 보아지는 그의 省察下에서는 결국 이들 多變數間에 致命的인 干聯을 갖게 되는것이  $eo = \frac{o}{D} \cdot \frac{dD}{do}$ ,  $ep = \frac{M}{P} \cdot \frac{dP}{dM}$  中에서의  $O$ (生産量)과  $P$ (物價水準)인 것이다.

S. Weintraub의 定式  $P = b \frac{W}{A}$ 에서 본바도 이와 同軌이다. 즉  $b$ (賃金 parity의 逆數)는 大單位就業人口를 相對로한 平均所得水準을 分母로 하기때문에 短期的으로는 큰 變動이 없을 것인즉(S. Weintraub는 美國의 경우 1960年代에 그것이 大體로 2였다고 指摘하고 있음) 결국 여기에서 物價水準  $P$ 에 影響을 더 많이 주게되는 것이  $\frac{W}{A}$ 이고 보면 勞賃水準 또한 急작하 큰 變化가 있을 수 없는 一般通念으로 보아 物價問題의 窮極의인 脚光은  $A$  즉 勞動生産性에 비춰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할수 있다. 여기서  $A$  대신에  $\frac{W}{A}$ 인 單位生産量(額)當 勞動費用의 概念을 援用한다 해도 理致에는 別差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아무튼 生産性이 계속 높아지는 經濟이라면 物價水準의 大幅의인 推上이란 있을 수 없다는것이 이들의 立場이다. 실제로 美國의 경우를 보면 S. Weintraub가 擘定한  $b=2$ 의 時期인 1964~65에는 物價水準이 年率로 2%의 增加밖에 보여주지 않았는바  $\frac{W}{A}$ 는 약 1%의 變化率에 머무렀음을 알수 있으며 이때에도  $W$  즉 賃金(實質)率은 2.1%의 增加였으므로 生産性(1人當)은 적어도 그水準이상으로 되었음을 反證해 주고 있다.<sup>14)</sup> 어쨌든  $b=2$ 로 보는데 있어서는 上述한  $P = b \frac{W}{A}$ 의 函數關係에서는  $\frac{W}{A}$ 가 적은 數值일수록 方向係數 2를 減勢하는 效果를 낳을 수 있을 것이고 別圖와 같이 物價水準을 下向으로 끌어내리는데 奏効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潛在失業者가 많으므로해서 賃金 parity가 높고 그 때문에 方向係數인  $b$ 가 美國의 2보다 적은 不完全雇傭下의 開發國家에서도 一應은 資本蓄積 過程에서 技術進步——生産性提高에 의한 物價水準의 安定化努力이 不斷이 이루어져야하겠지만 合理的인 勞賃政策을 通하여 被傭者를 包含한 社會全體의 過剩 내지 假需要의 根源을 除去토록 하는것이 매우 重要하다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生産코스트를 올리는 一方에서 過剩需要를 助長케 하는 根源을 막는데는 그들에게 歸屬되는 分配所得——勞賃水準을 生産性에 맞추어 規制하는 것이 賢策일 줄 안다.

14) S. Weintraub, Ibid. p.58.



즉 勞賃支出後의 課稅나 自發的인 貯蓄을 호소하느니보다 美國의 케네디政府에서 비롯한 賃金의 Guide Post政策같은 것이 있어 勞使協調下의 適正賃金水準의 策定이 物價昂騰을 未然에 방지하는 方便으로 쓰여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資源의 完全利用以前的 段階에서도 超過所得을 要求하는 結果로 惹起될 수 있는 것이다.”<sup>15)</sup> 美大統領의 經濟諮問委員會의 長이었던 G. Ackley가 R. Solow와 合勢하여 1962~66年の

A 美國經濟를 完全雇傭狀態로 몰고가는데 있어서도 스스로 物價인플레이의 限界를 設定해 나가야 하겠다고 說破한 이 斷言속에는 他山出石으로 할 施策의 面目이 躍然한바 있다.

個個企業에 있어서의 뚜렷한 目標價格이나 價格維持政策의 缺如로 말미아마 이러한 假需要와 對峙하여 여러가지의 財貨需給上의 마찰을 낳는 市場勢力의 整頓을 위하여는 effective Competition을 보장할 수 있는 流通機構 특히 農產物소통을 前提로한 大單位市場의 建設이나 業種別의 市場支配力을 養成하는 일 또한 重要하다. 後者는 특히 業種別 生産 및 販賣價格의 協定에 있어 獨寡占을 이룩하지 못하게끔 他業種과 比較하여 利潤의 平準化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同一業種內에서도 多岐化된 價格의 分派等差가 없게끔 어디까지나 自由競爭을 是認하는 土台위에를 얻는것이 目標로 設定하는 價格의 平準化가 要諦로 되는 것이다.

### Ⅲ. 物價安定의 貨幣의 效果

以上에서 筆者는 資本蓄積過程에서의 物價騰貴 現象의 主軸이 勞賃水準의 引上 및 生産性の 運行에서 오는 코스트·푸쉬에 있고 市場構造에서의 需給의 不均衡度는 過渡的인 影響을 끼치는 物價現象이라는 點을 中心으로 約說하였거니와 이어서 物價現象을 購買力내지는 貨幣의 側面에서 釀成하는 經過를 整論함으로써 拙稿를 마칠까 한다.

物價는 貨幣量의 多寡에 따라 上下運動을 하게 된다는 이론바 貨幣數量說은 낡은 理論이면서도 새로운 命題이다.<sup>16)</sup> 왜냐하면 M. Friedman이 說破하듯이 “物價現象은 結局은 매와 장소를 가릴것 없이 언제나 貨幣의 現象이었기 때문이다.”<sup>17)</sup> 단지 이 貨幣의 現象

15) G.P. Schultz & R.Z. Aliber編 “Guidelines Informal Controls and the Market Place.” 1966 G. Ackley의 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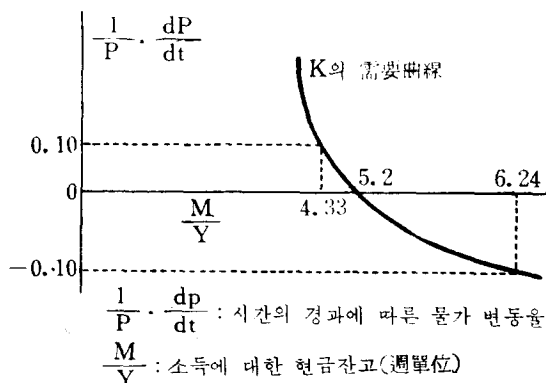
16) J.M. Keynes, “General Theory” P. 302

케인즈는 일찌기 “貨幣論”에서 基本方程式이라 하여 全體로서의 產出物의 價格  $P = \frac{E}{O} + \frac{I-S}{O}$  (여기서 E=總幣所得 O=總產出量 I=新投資財 増加量의 價格 S=貨幣의 貯蓄額)을 指定하였었는데 이에는 이른바 物價水準에서 新投資財의 增量만을 두드러지게 考慮했다는 것(概念의 誤謬)과 貨幣의 概念으로 諸要因들을 解釋 採用하고 있다는 點(貨幣數量說의)에서 後日에 自說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J.M. Keynes “Treatise on Money”, 1953 Chap. 10)

17) G.P. Schultz & R.Z. Aliber 前掲書중 M. Friedman의 報告 또는 M. Friedman, “The Optimum Quantity of Money and Other Essays,” 1969 p. 173.

을 物資와 對峙되는 購買力總量=總通貨概念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普通的 概念으로 現金通貨+要求拂預金殘高로서의 通貨量(Money Supply)으로서 把握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Marshallian式으로 現金殘高(K) 概念으로 보는 경우나 이의 綜合으로서 보는 경우도 있으려니와 어쨌든 物價現象이 貨幣量과 不可分の 關係가 있다는데는 異論이 없을 것이다. 18) 그러나 케인즈가 上述한바 貨幣量에 대한 物價의 彈性性 概念  $e_p = \frac{M}{P} \cdot \frac{dP}{dM}$ 에서 貨幣量을 직접 物價에다 연결시키지 않고 貨幣量을 前提로 한 總體有效需要와 이들 需要에 대한 物價의 彈性性問題를 경유하여 物價와 貨幣量の 相互作用을 보아왔듯이 오늘날 누구나 貨幣量이 곧 物價에 直結的인 影響을 끼치고 있다고는 斷言할수 없게 되었다. 貨幣의 流通速度, 貨幣의 種類 그리고 貨幣를 所要로 하는 生活樣式=決濟方式의 差異등에 의하여 같은 量의 貨幣가 주는 物價에의 impact도 다른뿐 아니라 貨幣支出의 對象이 되는 物資의 類別市場에의 出廻時期 기타 貨幣支出者의 期待나 性向에 따라서도 物價와 貨幣量の 相互作用은 다르기 마련인 것이다. 특히 期待要素(Anticipation factor)를 걸고 들어오는 데는 케인즈가 措定하듯이 物價는 더욱 具體的으로는 有效需要와 生産의 規模에 따라 같은 貨幣量을 前提로 하여서도 相違한 運動을 할수 있다고 보아진다. 19) 그러기에 그가 消費性向을 固定으로 보고 貨幣支出者의 所得의 多寡에 不拘하고 現實의 經濟는 貯蓄性向의 逆數인 乘數效果로서 投資=貯蓄을 늘리는 方向으로 發展한다고 하는데는 論理의 極端性이 엿보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Friedman이 지적하듯이 現實의 生産活動이나 그것의 將來할 變動을 언제나 念頭에 있는 物資의 需給市場에서는 消費性向의 固定보다는 期待要素에 뒷받침된 支出, 따라서 現金殘高의 加減에 따라 物價의 搖動이 있게되는 것이며 이 物價의 向背를 보고 實物經濟는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20) 數衍하면 所得增加에 따른 富의 處分力으로서의 購買力



(貨幣量)의 증가에 있어 後者가 경우에 따라 所得增加率보다 많아 짐으로써 實質的인 通貨需要 函數을 넘는 이른바 名目所得이 增加될 때에는 누구나 自己의 支出을 長期的인 眼目에서 定額으로 갖는 습性에서 必要한 保有 現金殘高外의 貨幣(購買力)를 곧 出廻시키고 말기 때문에 社會全體로 流動하고 通貨(購買力)는 많

아지고 그 때문에 物價는 오르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즉 이때에는 Marshall의 K로 말하면 物價騰貴가 시작할 起點에서 別圖와 같이 一例로 一年 52週에서 5.2週分 ( $\frac{M}{Y}$  週分, M은 現金殘高 Y는 年所得 貨幣 또는 購買力)의 것을 갖었다가 通貨量이 增加後에 實質殘高로서는 不變이지만 週單位로 하여 그것을 4.33週分(一年 52週의 10분의1)밖에 안 갖었다면 나머지 出廻貨幣量때문에 物價는 이틀테면 10% 오르는 作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措定한 假說은 어느 누구나 長期的인 眼目에서 自己所得의 一定部分을 언제나 用役의

18) 우리나라에서의 物價와 通貨量간의 相關係數는 +0.94(1962~69.9)이며 日本의 경우는 +0.64이다.

大韓商議編 “管理價格과 物價” pp. 126~127.

19) J.M. Keynes, “General Theory” pp.307~309.

20) M. Friedman, Ibid pp. 182~183.

구입용으로 留保하게 되며 恒常所得假說 Permanent income proposition이 留保된 現金殘高에 크게 加減이 없고 또 貨幣量의 급작스러운 追加가 없는 限 物價는 오를수 없나는 點이다. 이렇게 보며 물가를 搖動시키고 그로 因한 社會的인 弊害(Friedman이 즐겨 쓰는 社會福祉의 減少)를 惹起시키는 張本은 貨幣·信用을 造出하는 當局이 되고마는 것이다.<sup>21)</sup> 以上과 같이 物價에 끼치는 貨幣效果의 一例를 Friedman의 所說에서 略略하였거니와 事實 그의 所說에는 附會가 많다. 現金殘高를 恒常所得假說에 立脚하여 장기에 걸쳐 固定으로 보고, 있는 點도 그렇거니와 物價水準의 變動을 貨幣量의 增加되는 여러가지의 原因行爲——生産, 投機 또는 軍事的支出 등과는 全혀 무관한 抽象的인 觀點에서 說破하기 시작 한다는 것은 이 역시 Marshallian이 범한 均衡價格云云의 觀念論과 別차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通貨量의 急作스러운 增加(Friedman의 헤리콤포터로부터 投下說)는 그것의 經濟的인 效果가 케인즈學派가 말하는 自發的인 投資支出 같은것을 뜻한다면 그것에는 自然 投資를 남겨하는 技術의 進歩나 革新의 體化가 배경으로 되어야만 할 것이다. 어쨌든 通貨當局이 實物經濟에 대한 觀望에 착오가 있다든가 觀望과 實際의 支出規制의 사이에 時差(lags)가 번번히 있음으로 해서 物價와 通貨量간에 均衡的인 관계를 유지 못한 史例가 많고 그것이 累積되어 景氣의 上下 격심한 變動을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 또한 Friedman의 指摘狀況이고 보면 여기서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所見으로 어느 社會이고 物價의 큰 搖動없이 生産과 諸資源配分간의 均衡을 갖어 올수 있는 適正通貨量 또는 支出量의 策定이 있을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서 提起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Friedman은 그의 여러 著者에서 一應은 物價에 큰 變動없이 美國의 實物經濟를 이끌고 나가는데는 年 2%의 通貨量 增加를 指定하고는 있지만<sup>22)</sup> 어느정도의 物價 上昇을 經濟活動의 誘因으로 삼고 또 그러한 慣習에 젖어온 大部分의 現代經濟社會에서는 物價의 變動 그 自體를 아주 閉塞해 버리는 通貨政策이란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즉 어느나라이고 제 나름으로 適正通貨量의 策定이 있어 經濟活動을 過熱 또는 그反對의 方向으로 몰아넣지 않을 정도의 購買力을 保障하는 노력을 하는것이 事實이며 그외에도 重要的인 經濟的인 變數를 指目하여 혹은 資本係數나 혹은 消費性向을 長期的으로는 降下하는 양 보는 마당에서도 短期的으로는 그 起伏을 最少限으로 하게끔 하는것이 現實적으로 伸縮性있게 경제를 誘導하는데 보다 合理的인 政策眼이 될 것이다.<sup>23)</sup> 그러면 具體적으로 어느정도의 通貨量을 늘리고 오히려 우리의 主題에 忠實하는 뜻에서 어느 程度의 物價水準을 許容하고 나가야 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의 초점이 아닐 수 없는데 여기서는 古典派的인 見解로 돌아가 生産量의 供給(增加)이 需要를 充足치 못하는 기간만은 物價騰貴를 許容하는 程度로 그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할 것이며<sup>24)</sup> 물론 財貨의 生産費用이 오르는 것에 대하여는 어느때고 그에 相當한 (위에서 말하는 生産性出費相當의) 價格의 騰貴를 認定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과도기에 있어서는 物價騰貴를 실제코스트를 勘案한 최저선으로 억누르기 위하여 購買力의 一根源이 되는 貨幣量을 그 供給이나 需要面에서 過剩이 안되도록 規

21) M. Friedman, Ibid pp. 6~17.

22) M. Friedman, Ibid pp. 46~48.

但 2%의 通貨量 增加는 通貨의 厚生 經濟學的인 效果의 極大化를 위한 指定이기도 한.

23) M. Friedman, "Monetary Policy in developing Cauntries, 1920. 한국은행 創立 20週年記念講演文 여기서 그는 屢次 bad Monetary Policy는 經濟發展을 파괴할 뿐아니라 good M. policy도 직접 경제 발전을 낳지(Produce)못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24) D. Ricard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chap. 30

"商品의 價格을 窮極의으로 左右하는 것은 生産費이며 供給과 需要간의 比率이 아니다. 이 比率은 얼마동안 商品의 市場價格에 영향을 끼칠 것이나 그 效果는 一時的인 것에 불과하다"

制하는 일 또한 重要한데 이에선 우선 所得增加에서 發生하는 支出意欲에 結付된 消費나 投資水準의 調節 또한 課題로 되겠거니와 第一로 이들 有効需要의 具現手段인 通貨量을 規制하는때는 무엇보다 中央銀行의 Reserve Base(金融기관 預金+現札發行殘)를 늘리는 것이 捷徑일 것이며 所定の 金融機關預金外의 購買力이 創出 못되도록 하는때는 金融機關의 貸出에 せ링을 賦課하는 것이 낫은 것이다. 다음에 財政赤字의 拂拭 海外貯蓄의 制禦, 金融機關信用創造의 規制등이 열거 되겠는데 특히 後者인 金融機關 信用創造의 規制에는 上述한바 貸出 せ-링制나 貸出金利調節에 의한 量的 統制外에 貸出審査의 質的 規制 또한 陳腐하면서도 輕視 못할 課題이라 하겠다.

끝으로 所得增加에서 發生하는 支出意欲 특히 生産의인 投資아닌 消費의 規制에 關하여 언급하기로 하면 結局 消費의 過度한 抑制가 生産의 加速度原理에 基한 増進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支出을 規制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즉 所得增加에서 合理的으로 處分되는 生計支出은 그것이 支出됨으로써만 有効需要로서 財貨의 流通, 消費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社會의인 生産活動이 漸減되는 方向으로 經濟는 擴散되어 가야하는 것이며 이러한 過程에서 生産에 參加한 모든 就業人口의 所得도 늘고 投資資源인 貯蓄도 事後的으로 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齎來되는 貯蓄水準은 어느 程度이어야만 하겠는가.

經濟成長過程에서 레로드가 말하는바 適正成長과 自然成長이 相兪없이 이룩되고 資本蓄積이 中立의인 技術進歩下에 계속 健實하게 進行된 것을 理想으로 한다면 다시 그의 基本方程式에 돌아가 蓄積率이 成長率과 相等하게 되어

$$\frac{\Delta K}{K} = \frac{\Delta Y}{Y} = \frac{\&}{C} \quad (\& = \text{貯蓄率 } C = \text{資本係數})$$

$$\text{한편 } \frac{\&}{C} = G_n = l + t \quad (l = \text{勞動力人口增加率 } t = \text{生産性增加率}) \text{에서}$$

$$\& = \frac{K}{Y} (l + t) \text{이므로}$$

物價水準에 큰 搖動을 안 가져올 資本의 供給 즉 貯蓄率은 資本係數와 自然成長率의 相乘積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但 所得主體로서의 被傭者一般과 그렇지 않은 餘他の 所得層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餘裕있는 餘他の 所得層에서 被傭者보다 더 많이 貯蓄하는 것이 全般的인 貯蓄率 즉 資本蓄積率의 構成內容을 正當하게 할 것인바 이 點 稅制面에서의 考慮는 물론 社會政策의인 面에서의 配慮가 한결 必要的 것이라 하겠다. 아무튼 이렇게 하여 資本所得에서의 貯蓄率이나 貯蓄額이 絶對額에서 賃金所得의 그것들에 比하여 漸増되는 가운데서 資本蓄積은 계속 이룩되는 것이고 被傭者當 資本裝備도 늘게 마련이며 技術의 進歩는 이러한 資本集約의인 經過에 따라 生産性을 높이기끔 體化(embody)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런 고로  $\& = gc$ 에서의  $C(-\frac{K}{Y})$ , Weintraub에서의  $(\frac{K}{Q})$ 는 貯蓄性向이 一定率로 움직이는 限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그 값이 많으므로 해서 經濟成長率( $g$ )를 相對的으로 낮추게 지닐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이나 投資의 懷妊기간이 지나 跳躍(take off) 段階에 들어서 부터는 그 값이 적어짐으로서  $\&$ (貯蓄率)에 相應하는  $g$ 의 增率을 높이고야 마는 것이다. 物價水準의 趨勢도 이렇듯 資本蓄積이 技術의 中立의인 進歩率下에 있는 限에서만 앞서 言及한 바 큰 搖動없이 推移한 것이다. S. Weintraub교수가 指定한  $P = bw \cdot \frac{K}{Q} / \frac{K}{N}$ 에서의  $bw$ 部分도 바로 이러한 前提下에서만 서로 中和되어 物價水準의 安定에 寄與하게 될 것이다. 즉 資本所得과 賃金金得의 分配率이 恒等(이고25) 資本係數와 被傭者當 資本裝備率이 相計되는

25) Cobb-Douglass函數에서 資本과 勞動投入量 係數  $\alpha$ 와  $\beta$ 의 和가 1일 경우의 一次同次性的 生産事情을 뜻한다.

一方에서  $w$ (賃金所得)와  $b$ (賃金 parity의 逆數)가 다같이 그 絶對額의 增加에서 平準化를 보이게 되는 까닭에 이들이 物價水準에 끼치는 影響은 큰 搖動없이 進行하게 마련인 것이다. 貯蓄率도 이러한 環境下에서 一時的인 過不及은 있을수 있어도 基調으로는 經濟成長에 必要한 需要(資本係數側)를 메꿀수 있게끔 維持할수 있고 이것을 保障하는 것이 自然成長率의 基柱인 勞動人口增加와 그 個個人의 技術熟練度의 上昇인 것이다. 資本蓄積過程에서의 技術的인 側面이 새삼 浮刻되어지는 까닭도 이에 있다.

#### N. 結言에 代하야

以上으로 資本蓄積過程에서의 物價水準의 變動에 影響을 끼치는 貨幣的, 需給的 또는 生産性效果를 一應은 略瞥하였거니와 仔細히 論理를 展開하려면 諸般效果에 또 여러가지의 補足的인 要因들을 생각할 수 있다. 貨幣的 要因으로서 物價水에 影響을 끼치는 信用의 質的인 規制(資金別 融資査定率의 操作에서부터 資金別金 利適用, 期限區分, 어음貸 혹은 商業어음 割引間의 擇一的인 選好등등)를 補足할 수도 있고 需給的 效果의 要因에는 對外貿易을 通한 國內流通財貨의 새로운 投入—그를 위한 外換資源의 國際貸借는 姑捨하고라도 생각할 수 있으며 生産性效果에서는 施設財나 固定資本概念의 耐久年數가 當堂의 製品코스트에 미치는 影響 또한 좀더 補足해야 할 要因들이 있다. 勿論 코스트의 重要部分을 이룩하는 勞賃의 支給方法(都給拂, 成果拂, 最低賃金制與否, 社會保障制의 組入程度등등)도 生産性問題를 더 파고 들어가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分析要因이 된다. 그러나 이들 補足을 위한 研究는 또 다음 機會에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 等者나름으로 資本蓄積過程에서의 物價水準의 向背를 定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즉 앞서의 여러章에서 言及한바이지만 우리는 資本蓄積率  $\gamma_t = \alpha \frac{Y_{t-1}}{K_{t-1}}$ 로 놓았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趨勢値로 하여 이 定式에서 time記號를 除去하고 보면

$$Y = \frac{rK}{\alpha} \dots \dots \dots (1)$$

을 얻게 된다. 한편 上述한바 S, Wenitraub 教授의 定式  $P = bw \frac{1}{A}$ 에서  $\frac{1}{A} = \frac{K}{Y} / \frac{K}{N}$

을 代入하고 보면 
$$Y = b \frac{wN}{P} \dots \dots \dots (2)$$

를 얻게되에 (1)과(2)에서 
$$\frac{rK}{\alpha} = b \frac{wN}{P} \dots \dots \dots (3)$$
을 導出할수 있게된다.

그런데  $b$ 로 말하면 賃金 parity의 逆數이기 때문에

$$b = \frac{\text{被傭者比率}}{\text{賃金所得比率}} = \frac{\frac{N}{L}}{\frac{W}{Y}} \dots \dots \dots (4)$$

$N$ : 被傭者總數

$L$ : 就業人口總數

$W$ : 被傭者總賃金所得

$Y$ : 社會總所得

(4)를 (3)에 代入하면 
$$\frac{rK}{\alpha} = \frac{NY}{Lw} \cdot \frac{wN}{P} \dots \dots \dots (5)$$

그런데  $\alpha = \frac{S}{Y}$   $wN = W$ 이기 때문에.....(5)式을 정리하면 결국은  $P = \frac{1}{r} \cdot \frac{S}{K} \cdot \frac{N}{L}$ 를 얻게 된다. 이것은 物價水準이 資本蓄積의 率( $r$ )에 反比例하는 同時에 年年 새로히 공급되

는 Flow로서의 資本의 規模( $S$ )에 正比例하며<sup>26)</sup> 또 한편에서 社會의 總就業人口中 被僱者部分이 많을수록 大體로 上向하게 될 것임을 뜻한다. 부연하면 物價는 財貨生産을 위한 實物資本의 많은 出廻過程에서 需給不調, 購買力의 先行, 또 경우에 따라서는 過剩施設 등으로 한때 오르기 마련이나 生産方法의 改良 技術革新 등에 의한 生産性的 제고로 이를 다시 牽制할 수 있게 된다는 vision을 얻을 수 있다. 다만 上述한바 所得中에서 別로 貯蓄餘力이 없는 層이 相對적으로 많아질 경우에 특히 勞動力의 構造的인 移動이 있는 過程에서는 (1966~70에 서울시의 人口만도 453% 증가) 아무래도 定着된 就業人들보다 支出을 많이 하게 되므로 그러한 購買力이 物價一般을 上向케 할 것은 분명하다. 이 點經濟의 成長이나 發展을 謳歌하는 그늘에서 物價上昇의 機構的인 要因들을 미연에 防塞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겠다는 敎訓을 얻을 수 있다.

26) 여기서  $S$ 의 量의 매년의 흐름이 蓄積되는部分이 Stock로서의  $\Delta K$ 로 되고 그것의 歷史的인 總蓄積量이  $K$ 인 것일은 架說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